

색과 빛으로 그린 일상 이야기

(SANTA ANA, CA) – 프랑스 아티스트 Veronica Schmitt 의 작품은 존 웨인 공항의 커뮤니티 포커스 스페이스 에서 전시된 요즘 각광 받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순수 예술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인상주의의 화가 그림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녀의 아크릴 페인트는 이 전시회에서 지역 생활의 활기차고 부드럽고 다채로운 스냅샷을 캡처합니다. 그녀의 카탈로그에 있는 그림은 Thomas F. Riley Terminal에서 2022년 10월 18일까지 전시될 것입니다.

Veronica는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보자르 전직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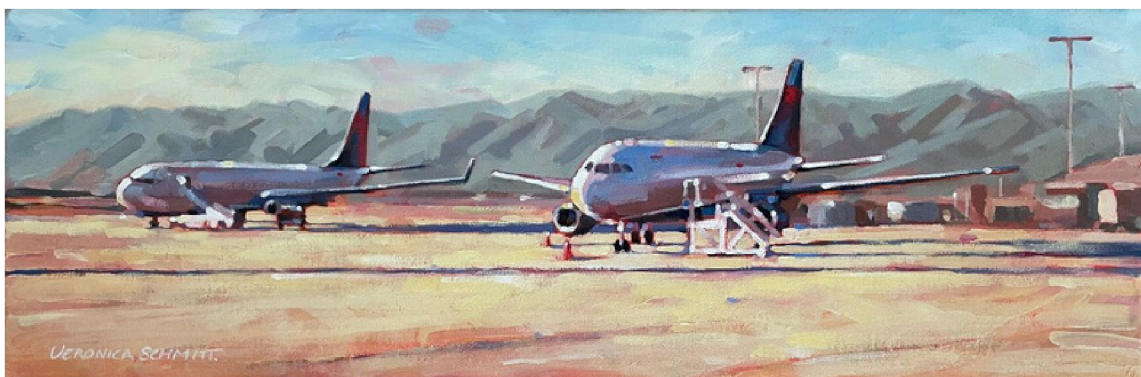
미국으로 이주한 후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커리어를 쌓던 도중, 그녀의 캘리포니아 탐험은 그녀를 인상파 예술가들에게 이끌었습니다. 그와같은 영감은 아직까지 그녀의 스타일과 팔레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 3월 1일, 나무에 아크릴 (Corona Del Mar 1)



생명의 은인, 나무에 아크릴 (Lifesaver)



쉬는 새, 캔버스에 아크릴 (Resting Birds)

작가는 주제나 장르를 불문하고 언제나 빛이 그녀의 그림에서 가장 강한 요소라고 전했습니다. 생생한 색상과 관련하여 그림자 또는 반사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탐색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는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고 이러한 평범한 장면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초대하여 자칫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목적은 일상 생활의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객들이 속도를 늦추고 일상 장면의 찰나의 순간을 즐기도록 권장합니다. 제 그림은 삶의 사소하지만 소중한 스냅샷입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예술가로 인정받는 Veronica는 California Art Club의 회원이며 아크릴 화가의 국립 협회 에서 여러 작품에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전,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여러 권의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The Artist Magazine과 Southwest를 포함한 프랑스와 미국의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지만 종종 캔자스에서도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는 도시이기도 하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그녀의 개인 웹사이트 veronicaschmitt.co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보안 근처의 출발(상단) 레벨에서 볼 수 있습니다(사전 보안).

터미널 A, B, C의 심사 구역과 그 옆에 있는 도착층(하단)

수하물 캐러셀 1 및 4.

John Wayne 공항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oair.com/terminal/artexhibits.

###